희망세상 (2005년 9월호 / 36호)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발행일 : 2005년 9월 1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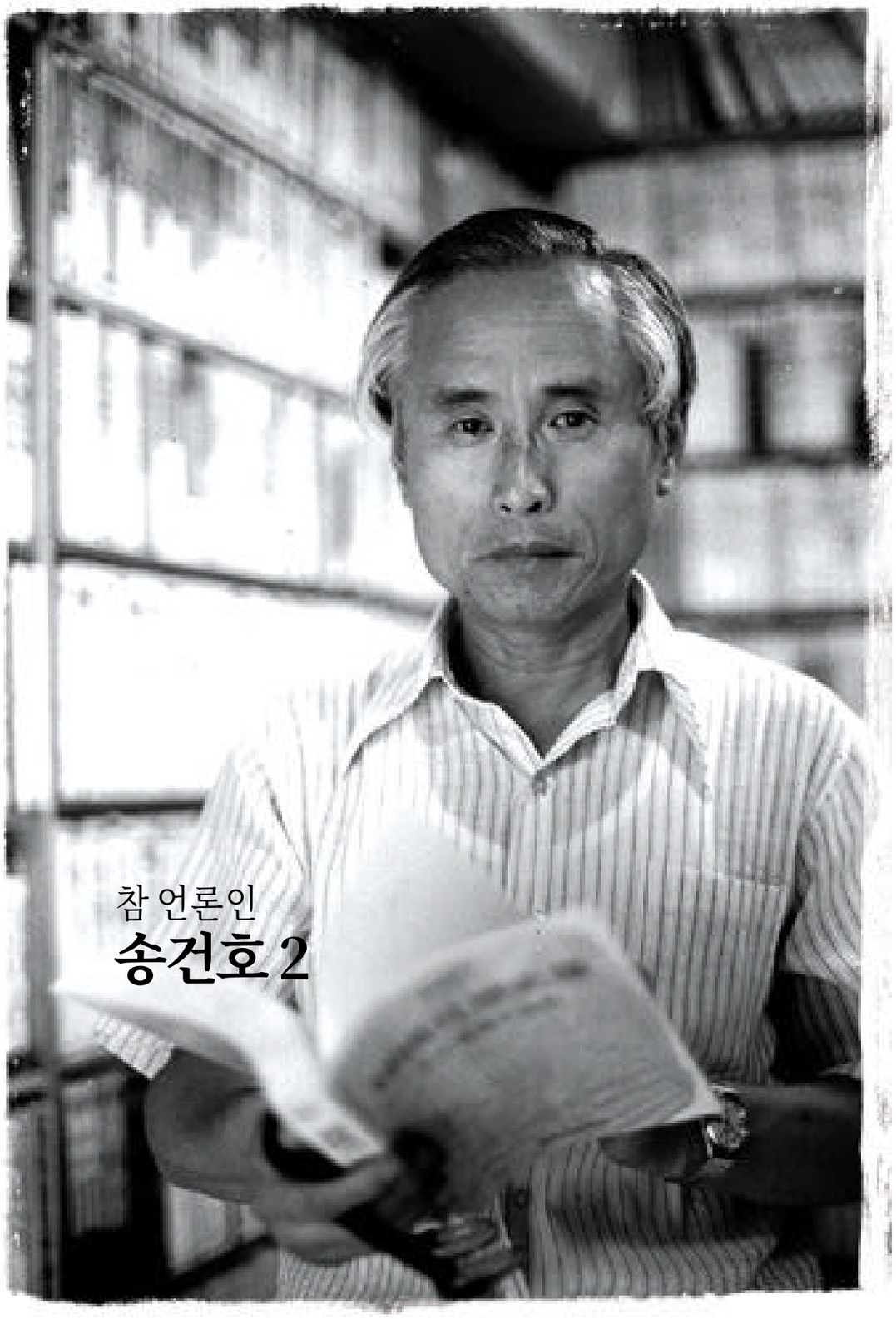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참 언론인
송건호 2

안기부에서 불법으로 도청한 테이프가 날마다 우리사회를흔들어대고있다. 내용이공개된테이프에는 어느 중앙 일간지 사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그사주는 대선 후보의정치자문을 서슴지 않았다. 그뿐 아니다. 모 그룹 회장의 선거 자금 배달부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다. 돈으로 권력을매수하려한족벌언론사주답게그는다른후보에게도 선거자금을 대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그는 신문을 사사로운 도구로 이용한 셈이다. 상상해 보라! 정치권력을 움켜쥐려고 음모를꾸미는언론사사주의추악한뒷거래풍경을!

불법도청테이프를퍼뜨린전직기관원은공중파방송사와 신문사의‘ 치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고 털어놓았다. 그로서는 도청 테이프를 폭로한 언론사의 행태나 재벌의하수인노릇을한언론사나역겹기는마찬가지였을까? 자신을잘못 건드리면‘ 언론에재갈을다 물려놓을것 ’이라고경고했다. 우리사회에서한다하는언론사들이하나같이퇴직기관원에게‘ 언제너희들이발칵뒤집어질날이올지모른다. ’고협박을당한꼴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밝히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들은 척도 안 한다. 기관원의 경고대로 자신들의 더러운 행태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걸까. 오로지 불법도청에만 초점을 맞추며 여론을 거스르기에 급급하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의 언론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동아일보에서 해직되다

1974년 긴급조치 1,2호를 발표한 박정희 유신정권은 무자비한 언론탄압에 나섰다. 아침저녁으로 기관원이 신문사에 출입하며 ‘ 빼라 ’, ‘ 끼워라 ’, ‘ 그런 식으로 보도하지 말라 ’, ‘ 이 문제는 사설로 다루어야 한다. ’ 고간섭하는 게 그 무렵신문 제작의 현실이었다. 대학생들의 데모기사를 빼라는 압력을 거부한 동아일보는 정권의 눈엣가시나 마찬가지였다. 독재정권은 즉시 기업주들에게압력을가했고, 동아일보는주수입원인광고없이백지로신문을발행하기에이르렀다.

정권의 탄압에 맞선 기자들은 1974년 10월 24일, 노조를 만들고 정보기관원의 신문사 출입을 금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자유언론실천선언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 성유보는 성명서 내용에 대해“ 정부권력이나외부간섭에대해편집권을지킨다, 기사는 우리 판단대로 쓴다, 기사와 관련해서 그때는 연행하고 고문하고 협박하니까 정권의 탄압을 개인차원으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 집단으로 저항한다, 기사와 관련해서기자가연행되면그사람이돌아올때까지전사원이회사에서농성한다. 핵심은 그것이다. ”라고잘라말한다.

송건호는 기자수첩 맨 앞장에 ‘ 안중근의 유훈 ’인‘ 인내와 노력,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못 할 것이없다. 인내야말로환희에이르는길이다. ’라는글귀를 써넣고다녔다. 그는 그 수첩에 광고파동을 생생하게기록하기도했다. ‘ 광고탄압으로백지가된지면을 국민들이 메우기 시작했다. 독자들의 격려 광고 게재는 기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마음까지 울리고, 기자들은제작거부에들어갔고, 정권의압력에굴복한 회사는 주동자들을 해고시키고……. ’ 편집국장이었던 송건호는‘ 약 130여 명 중 거의 50여명을내이름으로 해임한다는것은죽으면죽었지할수없는일이었다. ’고고백한다.

정권에 굴복한 사주가 150여 명이나 되는 기자와 사원들을 쫓아내자, 그는 기자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기로결심한다. 마침내송건호는1975년3월 15일 오랜고민끝에사표를제출한다. 사장과주필에게“ 이와 같은방법으로문제를수습하면 20년후에는반드시후회하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20년이 아니라, 30년이 흘렀건만 족벌언론 사주들을 겨냥한 송건호의

예언은여전히시퍼렇게살아서우리사회를맴돈다.

“ 우리보다 더 용감하게 사표를 딱쓴다, 이건 대단하다. 그 무렵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시대인데, 선생님은편집국장으로서선택을한거지요. 그때 운동권 노래 중에서‘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기원한다 ’라는노래가유행했어요. 말이그렇지쉽나요. 우리야 젊은 혈기에 그랬다지만 송건호 선생은 정말귀한분이고기자들의사표가된분이지요. ”

언론인의 진면목을 보였다는 성유보의 회고대로 송건호가흔들림없이걸어가려고했던길은‘ 참언론인 ’이었다. 그가 폭력에 맞선 것은 투사여서가 아니라 불의와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직서를 쓰면서 송건호는두차례나울었다. 쫓겨나는후배들의뒷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언론인으로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해직당하는게서럽고다시는언론계에돌아올수없을 것같아서그는농성하는기자들과함께하염없이눈물을흘렸다.

송건호에게기자란무엇인가?

“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이끌어가는사람이다. 언론인은사상가가되어야한다. 신문기자라고 해서 어느때는 이런 글을 어느때는 저런 글을 쓰는 대서소 서기와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된다. 양심에따라글을써야한다. ”

▲ 송건호에게 기자란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고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그는 7,80년대 해직된 기자들과 함께 민언협을 만들기도 했다.
▼ 1990년 언론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언노련 조합원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신문을 만들다

7,80년대 해직된 기자들과 함께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를만든송건호는1985년 12월월간『말』지를창간하였다.『말』지는제도언론에서다루지않았던미문화원점거사건이나비참한노동자들의현실을다루었다.

“『말』지를 편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경찰들이 편집실을덮쳐서인쇄하려고만든초본을빼앗아갔다. 창간호를 만들 때, 여섯 차례나 편집실을 바꾸고 도망 다니다서대문샛길여관에서마지막편집을했다. ”최민희의증언대로정권의탄압은극심했다. 모든언론사는 기사를 쓰고 편집하는 데 정권의 지침을 따라야 했다. 이를테면‘ 고문관계는 오늘도쓰지 말것 ’‘ 광주사태 유가족인터뷰는싣지말것 ’따위였다. 전두환군사정권은‘ 보도지침 ’을 어기면 기자와 편집자를 연행해서 구타했다.

국회 언론청문회에서 한국일보 기자 김주언은 이렇게 증언한다.“ 신문사 편집국에 정보기관원이 상주하면서편집기사를하나하나간섭했고, 문공부에서유선이나말로보도지침을내리고, 보도내용을일일이간섭하고……. 언론통제가극에달한시기였다. ”보도지침을 낱낱이 실은『말』지를 발행한 민언협 회원들이 구속되자, 송건호는 그『말』지를 복간하자고 주장했다.‘ 침묵의 자유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의 괴로움을 많은 지식인들은 경험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선에의 의지를버려서는안된다. 그것으로서도그지식인이나 신문은앞날의타락을면할수있는희망이남는다. ’

80년대를 지나며, 군사정권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변질하는 언론을 지켜본 송건호는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한신문을꿈꾸었다. 1987년6월항쟁을겪으면서그의 주장은 차츰 현실로 드러난다. 1987년 10월 30일, 자본과권력에서독립한신문을만들기위한창간발기인대회가열렸다. 그리고국민주모금운동을시작하였다. 목표액은 50억이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그 무렵국민들은대통령선거에관심을쏟고있었다. 송건호는모금운동에앞장섰다.

“ 모금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매우 부진했어요. 선거해서군사독재를바꿔야하는데신문을만드냐고, 신문하나만드는데돈이얼마나많이드는데, 그돈있으면 딴 거 하지 그런 분위기였어요. 과연 잘 될까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87년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되는 바람에 6월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 엄청난 실망을 하고신문모금에뛰어들었어요. ”

불가능할것같았던 50억원이모이고드디어창간호 준비에 들어갔다. 송건호는 편집국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연설했다. 그는기자의자율성을강조했다.

“ 무슨 문제든지여러분들이 쓰고싶은 대로다 써라. 말하고 싶을 때 표현에 조심하라. 그러나 항상 국민의 지지를받는신문이되기위해서는우리는연구할필요가있다. ”

한국언론의새지평을연한겨레신문은드디어1988년 5월 15일 창간되었다. 그는 감격에 젖어 창간사를 써내려갔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신문을 만들기 위해 국민이 주주가 된 한겨레신문을 창간하기에 이른다.

‘ 한겨레신문의모든주주들은결코돈이남아투자한 것이 아니요, 신문다운 신문, 진실로 국민대중의 입장을대변해주는참된신문을갈망한나머지없는호주머니 돈을 털어 투자한 어려운 시민층이므로 이 신문은 개인 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재래의 모든 신문과는 달리 오로지 국민대중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그런 뜻에서참된‘ 국민신문 ’임을자임한다. ’

동아일보에사직서를던진지 14년만에송건호는다시자신의자리인언론인으로돌아왔다. 그에게신문은 역사였고 기자정신은 역사의식이었다. 송건호는 평생 실천해온좌우명을후배들에게남겼다.

‘ 나는 글을 쓸 때마다 항상 3,40년 후에 과연 이 글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를 생각한다. 먼 훗날에도 욕을

고문 후유증으로 8년 동안 파킨슨씨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던 송건호는 ‘ 다시 태어나도 언론인으로 살고 싶다 는 말을 남기고 2001년 12월 21일 눈을 감았다.

먹지 않기로 다짐한다. 크게는 민족을 위해서 적게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어찌 더러운 이름을 남길 수야 있겠나를생각해본다. ’

역사 앞에 정직했고 인간에게 다정했던 대쪽 같은 선비

“ 전두환정권시절고문후유증으로고생할때선생께서 고기 다섯근과 돈 5만 원을 들고직접 찾아오신 적이 있다. 당시 선생도 옥고를 치른 지 얼마 안 돼 고생하면서도늘남을먼저생각하시는인간적인모습을잊을수가없다. ”백기완은송건호를따뜻한사람으로기억한다.

80년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 일요일마다 산에서“ 하루 종일 떠들고 허튼소리 하다가 저녁 때 집에 돌아와 목욕을 하고 나면 그 이상 즐거움이 없었다. ’는 그를 ‘ 거시기 산악회 ’회원인 이돈명은 요구르트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산에 가는데 요구르트를 가져와, 여러 개를 말이지. 그래서 이거 어디서 사냐고 했더니, 아침마다 모아서 가져온다고 해. 그래서 별명이 요구르트야. 순진무구한소년같아요. ”

강직하다는 인상을 준다는 사실을 못 마땅해했던 송건호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았을까.‘ 남산 지하실에 끌려갔을 때 송 아무개가 어떻게 생긴 놈이기에 악명이 높으냐고 하면서 수사관이 찾아와서 보더니, 악질이라고 해서 굉장히 험악하게 생긴 줄 알았더니 선비 같고 호인으로 생겼다고 하더군요. ’ 그는 그곳에서도 수사관들이 혀를 차거나 말거나 좋아하는 우유로 천연덕스레밥을말아먹었다.

“ 우리가 송진사라고 그래요. 유생적인 데가 있어. 술 담배도 안 하고, 점잖고, 말수 적고, 조신하고, 생활이 청렴하고 결백하다 하여 송진사다. 이런 사람이 자기 비위에 어긋나면 고집을 꺾지 않아. 대쪽 같은 의미로 서투사다. ”남재희는대쪽같은선비의이미지로송건호를기억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과 맞먹는다는 도청 테이프가 유령처럼 떠도는 요즘, 친일파와 해방 뒤 정치권력에 빌붙은 사람을 비교한 송건호의 분석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현대사의 변절자보다는 일제 때 매국노가 처신하기 훨씬 어려웠을 거라고 본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우리민족이영원히독립하지못하리라여겼다. 태어나서부터 식민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조선 사람은 일본에 운명적으로 종속된 채 살아야하는 줄 알았다. 일제가영원히지배할것으로생각했다. 그래서송건호는 자유당정권과 군사정권 때보다, 일제 때 양심을 지키고사는게더어려웠으리라판단한다.

“ 박정희는 언젠가는 죽고, 전두환은 오래 못 갈 것임을 안다. 따라서 일제 때 친일파보다 지금의 변절자가 더 문제다. ”도청 테이프의 어두운 구석자리에 자신의 이름이 한두 차례 오르내림직한 이들이 과연 송건호의 심판에서자유로울수있을까.

‘ 파리한마리도못죽이는심약한내가무슨죄를지었다고 이렇게하는가? ’남영동대공분실에서 19일 동안고문을당하고허위자백을한다음송건호는탄식했다. 그는 창 밖으로 삼각지를 보면서 기적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기차와 오가는 시민들을 신선처럼 부러워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단지 민주주의를 하자고 주장한죄밖에는달리범법행위가떠오르지않았다.

그 무렵의 고문 후유증은 10년 뒤에나 나타났다. 병상에쓰러진그는새카맣게죽은피를두사발이나빼냈고, 이내 다리가 마비되었다. 1990년 이후, 그의 기자수첩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육의힘이점점빠지는파킨슨씨병이었다. 그는병석에서8년이나투병생활을하다가 2001년 12월 21일눈을 감았다.

해직교수들이 복직되는 것을 보면서도, 송건호는 언론인은 결코 권력자들이 복직을 시키지 않으리라 생각하였다.

“ 민주화가되지않으면이대로살다가늙어죽는길밖에없다. 가진 바 능력을 살리지못하고 몇몇 사람들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희생당하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운명이서글프다. 그러나이렇게늙어가는것을슬퍼하지만은않는다. 다시태어나도언론인으로살고싶다. ”

윤동수
1960년생
1990년 사상문예운동 겨울호에「새벽길」발표
2003년 평전『윤상원』발간
2004년 단편「바람 속의 거미집」을『문학과 경계』
여름호에 발표